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 대한 연구

-칼 융의 심리학과 퇴계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orean's Way of Communication and the Self-Expression

- Centered to Carl G. Jung's Psychology and T·oegye Yi Hwang's theory of Human Mind and Nature -

김장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Jang-Ee Kim(vero2001@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고찰하여, 그에 따른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인의 정서는 정(情)이라고 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情)의 개념과 상담 및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정(感情) 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의 정(情) 문화가 의사소통에서 온전한 감정 이해와 자기표현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어떻게 감정이해를 하고 자기표현을 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소통에 있어서의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에 대하여 서양의 경우는, 칼 융 심리학을 통하여, 한국사상에서는 퇴계 심성론을 통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 것은,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는 큰 자기(Self)에서 나오는 감정이며, 퇴계 심성론에서는 성(性)에서 나오는 올바른 정(情)에 의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행위의 주체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라는 것과 마음이 통해야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의사소통 | 자기표현 | 감정이해 | 정(情) | 융 | 퇴계 이항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emotion-understanding of Korean and thus to find out the importance of their way of self-expression by exploring the sentiment of Korean as regards their way of communications and self-expression therein.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eing presumed the *Cheong* as the Korean's sentiment, to define the differences of concept between the *Cheong* traditionally used by them and the emotion employed in the psychology or the theory of consultation. And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aforementioned importance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Cheong* in the Korean Culture makes it difficult that their emotion-understanding and self-expression to be perfect in their way of communication. In order to attain such purpose in this study, it investigates how they have seen the emotion-understanding and self-expression as to the way of communication throughout Carl G. Jung's psychology and T·oegye Yi Hwang's theory of Human Mind and Nature respectively in the Occidental and Korean's Ideology.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enlightened in this study, in the way of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are the emotion come from the big-Self(Self) in Carl G. Jung's psychology and that of the righteous sentiment from the human nature in T·oegye Yi Hwang's theory of Human Mind and Nature. In conclusion, it reveals that our behavior, unvaryingly in the Orient and the Occident, is not the rational subject but the emotional one to be reacted only if our minds are attached mutually.

■ keyword: | Communication | Self-Expression | Emotion-Understanding | *Cheong* | Carl G. Jung | T·oegye Yi Hwang |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고찰하고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가는 주체인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있다. 근래 대부분의 한국인은 동양철학적 토양에서 성장하면서 서구의 학문을 배우고 자랐기에 동서양의 철학과 문화를 통합적으로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집단문화로 이어져 온 정(情) 등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뜻밖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구 교육에 의한 개인주의 입장에서 자기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인 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서구와 비교해볼 때 서양은 개인주의, 평등주의, 직설적, 실용주의와 이성주의가 강조되었다. 반면, 동양은 집단주의, 계급주의, 간접적, 형식주의와 감정적인 표현이 부각된다. 이런 현상은 한국인의 의사소통 성향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의사소통 특징은 간접화법을 구사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뭉뚱그려 표현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총체적으로 받아들인다[1].” 문화인류학자인 Hall은 사람들의 의사소통행위를 여러 나라를 통해 비교한 연구에서, 표현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황 맥락이 갖는 중요성의 여부에 따라 고맥락-저맥락 문화권이 구별된다고 하였다[2]. “한국과 같이 고맥락적 언어 문화권에서는 표현된 언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3].” “의사소통은 감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서로 화목과 선의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느끼고 해결하며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4].” “의사소통의 능력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인식 덕분에 문화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었다[5].”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문화에서 온전한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은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정(情) 문화나 도덕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전통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며, 정에 의해 감정

을 감추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집단주의 전통에 의해 상하 서열에 의해 눈치를 본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한국 문화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감정 이해와 자기표현과는 구별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서구 이론은 융 심리학에서의 인간심성론을 통하여, 한국 이론은 퇴계의 심성론에 의거해서 감정 이해와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나 한국인의 의사소통, 감정 이해와 자기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형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의 인간관이나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드러냈으나 정확한 측정도구가 필요한 연구[6], 우리 고유의 내재된 정서에 대한 연구[7]는 사회 문화적,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인 토대 위에서 역사적 사실과 함께 민속 행사 등을 비교 연구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정서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연구[8]는 전달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고, 상호간의 주고받음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서구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탈피한 한국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제공한 연구[9]는 의미가 있었지만 문화와 비언어에 대한 분석에 제한점이 있었다. 마음경험을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통해 검증한 연구[10]는 문화적인 행위나 행위들은 마음이 진실할 때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관계와 정 지향, 정서 표현의 억제 및 부적 정서의 승화의 세 가지 개념 틀을 제시한 연구[11]는 의의가 있었다. 실제 대학생활 적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주의이며,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집중하여 명확하게 인식함이 필요한 연구[12]와 집단 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13]는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제시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연구에서의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이유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한국적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둘째, 감정의 이해와 자기표현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감정이해에서는 감정과 공감 부분,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치며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정(情)의 개념을 구분하여, 감정과 어떤 점에서 포괄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감정 이해와 자기표현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구 이론은 융 심리학에서의 인간심성론을 통해서, 한국 이론은 퇴계이황의 심성론(心性論)을 통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했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이로써 동·서양이라는 공간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며,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방식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은 “누가 무슨 메시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고서 전달하느냐”로 라스웰이 정의했다[14].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말을 하는 동안의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난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수면 밑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는 사랑과 인정, 주고받고 싶은 마음 등 비언어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가리게 된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들은 다양하다. 말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듣는 사람이 자기 입장이나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들을 때, 또는 가치관이 다르고 말을 들으면서 선택적 지각과 수용을 하고 있을 때이다. 또한 자신이 처한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대화의 표면(겉마음)과 내면(속마음)이 다른 경우에 내면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통찰에 의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말은 대화의 표면상 주고받는 사실과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이 더욱 큰 차이가 난다[15].” 예를 들면, 한국인의 표현법에는 상대방에 맞춰서 하는 습관이 있다. 상대의 입장이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하는 습관이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에 어떤 분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경우, 집 주인은 “식사는 하셨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방문자는 저녁 식사가 끝났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식사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집주인은 그 대답을 사실 그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대답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대화는 이처럼 표면과 내면의 속뜻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화의 표면을 듣고 통찰을 해서 그 내면의 뜻을 알아들어야 한다[16].” 더불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표현을 통해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국 문화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대별해서 개인보다는 대인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라 할 수 있다[17].”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정(情)과 한(恨)의 문화로 규정지어 왔다(윤태림, 1970 ;김열규, 1986 ;이어령, 1982) 정은 심정이 생겨난 배경이 된다. 한은 정과는 반대방향에 있는 한국인의 정서이다. 한은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18].” 하지만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때를 떠올려보면 거리마다 쏟아져 나온 인파 안에서 흥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정(情)과 한(恨) 말고도 흥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정서 또는 감정 중에서 정(情), 한(恨), 흥(興)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우리, 체면, 눈치, 핑계 등이 있겠다. 특히 서로 대화를 할 때, 한국인은 ‘나’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민족성과 집단 의식에 대해 알아야 하겠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개인보다는 가족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우선시 하였는데, 이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장소, 상황에 따라 지위, 연령 또는 성별 등에 의거한 관계의 위계질서를 지켰다.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성 집단을 구성하고 확인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한국인의 우리관은 동질성, 하나됨, 상호의존, 상호보호, 상호수용 등을 그 내재적 속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자아와 우리성 자아가 동심원적인 중첩성을 갖

는데[19].” 이와 같이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약, 나와 너 그리고 그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첫 번째 뜻은 나에게 의미 있는 나와 관련된 ‘우리’라는 의미이다. 보통 “우리 집”, “우리 아내”로 사용된다. 두 번째 뜻은 나와 너, 두 사람이 포함된 ‘우리’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의 경우이다. 세 번째 뜻은 나와 너 그리고 그를 모두 포함한 여러분의 의미인 ‘우리’ 의미이다. 일례로 “우리 오늘 필철 야구경기 잘 해보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 세 가지 뜻이 있지만, 한국인이라면 대화 속에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에 담긴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듯 한국인은 ‘우리’라는 문화와 정서 속에서 ‘우리성’을 중시하면서 정, 한, 흥 등의 감정에 의해 소통된 문화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관계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또 관계 당사자인 나와 상대의 감정에 대해 잘 알고 표현한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의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은 자신보다는 ‘우리’라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에, 나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의사소통의 경우에서도, 직접화법보다는 간접화법으로 말하고 있고, 이미 말로 표현된 그대로가 아닌 통찰로 알아들어야 하기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표현 역시 쉽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한국인의 의사소통 구조에서 자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소리에 머무르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 다음 상대에 대한 감정도 자신의 경우와 같이 바라보게 된다면, 공감력이 길러지고 관계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상대의 감정이나 표현에 대하여 쉽게 속단하지 않고 기다리게 될 것이며, 상대에 대해 오해를 했을 경우, 무슨 이유인지 물어서 즉, 배워서(學) 오해를 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관계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을 살펴보면, 감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감정을 주고받고 수용하는 공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특히 여러 한국인의 정

서 가운데 한국인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우리 문화의 정(情)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감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포괄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감정이해와 자기표현

1. 감정이해

1.1 감정

심리학과 상담이론에서의 감정에는 감정, 정서, 느낌, 기분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는 일반적으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급격한 감정의 흥분상태, 즉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개체의 내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를 계기로 동요되고 흥분될 때에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정서의 어원적 근원은 라틴어 「emovere」에서 유래한 것인데 <e>는 밖으로란 뜻이며 <movere>는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느낌이란 우리가 체험하거나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일어나는 자연적인 내적 반응이다. 느낌은 우리 자신의 깊은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호해주는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느낌과 감정은 외부의 사물에 대해 일어나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20].” 인간은 매순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다. 감정이 발생할 때 알아차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감정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감정어이다. 이와 같은 감정어에는 기쁨 등의 긍정적인 표현과 분노, 슬픔, 우울, 답답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기 때문에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분을 위한 방법이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은 자신에게 알려주는 신호로 알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1.2 공감

본 논문은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 대한 연

구로 감정이해를 통한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공감은 나와 상대의 감정이해를 통한 자기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한다. “공감이란 타인의 사고(思考)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넣어, 타인의 체험과 동질(同質)의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일체화(一體化)나 동일화(同一化)와는 다르며, 주위 사람들이나 현상(現象), 즉 공감대상과 자기(공감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상과 자기의 심리적인 동일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21].” 위의 사전에서 공감의 정의는, 너와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이심전심(以心傳心)과 같다.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것이 자기사랑이라고 한다면,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누구나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진정어린 공감을 받았다면, 마음 밑바닥에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해소되었던 경험을 실감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 문화에서 공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가 힘든 것을 내어 놓았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답을 내어 놓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점과 동감을 공감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그랬어’라고 자신의 이야기로 돌린다면,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반감을 사게 되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조성호는 상담에 있어서 “공감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에 접근하고, 자신의 경험을 말과 개념으로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순간순간마다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22].”라고 하였다. 상대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올바른 감정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통한 감정이해는 부정적으로 잘못 지각된 감정을 올바른 감정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 앞으로 다룰 퇴계의 심성론에서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思)에 이치가 아닌 올바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간이해에 있어서나 감정적 오해는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 나누고 배워서(學),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올바르게 적용함이 필요하겠다. 올바른 감정에서의 변화는

지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하여 직각적(直覺的)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나눔 그리고 배움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고 올바른 감정을 가질 때 발생한다. 심리학에서는 마음 깊은 곳인 무의식 속에 있는 올바른 감정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켜켜로 쌓여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될 때 공감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감정이 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밖으로 표현되고 있는 표면감정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깊은 내면감정인 사랑과 인정이 표현될 때까지의 과정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될 때, 상대가 공감을 해준다면 이 상황에서의 공감은 깊은 내면과 만나도록 도울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동·서양의 소통에 있어서 감정이해와 공감 그리고 표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1.3 정(情)

정(情)이라는 개념은 서양인의 애정(affection), 사랑(love) 그 기본 성격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구체적인 감정 구조와 인지구조의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인 정(情)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23]로는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또는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 최상진[24]은 정(情)을 한국인의 대인 관계에 작용하는 기본적 심리 문법의 원형으로, 임태섭[25]은 “정이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접촉과 공동의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정신적 유대감”이라고 하였다. 즉 “정은 사랑의 감정 같은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감정 상태라기 보다는 장기간의 접촉과 정에서 이슬비에 옷이 젖듯 잔잔하게 쌓여져서 느껴지는 누적적 감정 상태이다, 따라서 정의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그 지속 시간도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훨씬 길다[26].” 한규석, 최상진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대인관계는 그냥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연고에 의해서 연결되는 내(內)집단의 성원과의 관계이다. 이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 연줄로 연결되는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이라는 심적 자원을

주고받으려 정을 쌓아가는 교류이다[27].”라고 보았다. 낮은 사람, 익숙한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 맺음이 되었을 때, 정이 쌓이면 사랑보다 더 깊은 게 정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래서 깊은 정을 떼어 놓기가 힘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둔 환자가 원래의 성격이 따뜻한 사람인 경우,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깊었던 정을 떼기 위하여 오히려 모질게 군다고 한다. 모임을 통하여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들이 맺은 관계는 끊기 어려운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한국인의 정(情)의 개념은 심리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감정과는 달리 정들의 의미가 독특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심리학과 상담이론에서의 감정과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들의 정에 대한 차이점과 어떻게 포섭되는지 살펴보겠다. 심리학과 상담이론에서의 감정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정들에 의한 정(情)의 개념은 감정의 상태에 의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자신에게 내재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축적에 의한 공유에 의하여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때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여도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상대와 소통하게 된다. 단지 우려되는 바는, 정든 상대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출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깊은 정이든 상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자기표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표현 부족으로 간주하지 말고, 자기표현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실천을 통하여 상대와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주고받으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것과 본성에 의한 올바른 감정에서의 ‘있는 그대로’ 자기표현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심리학에서의 감정, 느끼는 것과 우리가 통상 사용되는 정들의 정은 심·성·정(心·性·情)에서의 발현되는 정과 다르다. 여기에서의 정(情)의 개념은 심통성정(心統性情)에서의 개념으로 “심(心)은 성(性)에 의해 그 본질이 표현되고, 정(情)에 의해 표출된 상황이므로 그 둘을 이미 통솔한다고 하였다[28]1.” 이

와 같이, 감정은 좋다 나쁘다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감정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의 본성(性)이 발하는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다. 성(性)이 정(情)을 통하여 발현된다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싫은 사람이나 사건 또는 사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감정 자체는 언제나 좋은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좋은 것을 이전에 경험해서 알고 있기에,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퇴계의 심성론에서 밝히는 올바른 감정에 대한 배우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너와 나에 대하여 오해했던 바를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서로에 대해 제대로 배운다면 불편한 마음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성(性)은 넓은 의미로서 본성, 본질을 표현하며 성(性)에 의해 발현된 정(情)이 심리학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들의 정을 이미 포섭하고 있다 하겠다.

2. 자기표현의 중요성

국어 용어사전에서 자기표현의 정의는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화자는 문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분명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한다. 따라서 능숙하게 갈등을 다룰 수 있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영어에서 정의하는 자기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self-expression (자기표현)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자기 심성의 표현으로 정의된다. 둘째, self-assertiveness (자기주장)은 좀 더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기마음이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self-disclosure(자기표출)은 상황에 따른 능동적 자기과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장호는 “자기표현이 안 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예를 들면서 자기표현의 필요

(情)이다. 겉으로는 표출된 인간 행위의 실제적 정황이다. 그것의 도덕적·의리적 덕목에 해당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性)이다. 이 성(性)은 사단(四端)인 심(心)의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심(心)은 성(性)에 의해 그 본질이 표현되고, 정(情)에 의해 표출된 상황이므로 그 둘을 통솔한다. 이른 바 심통성정(心統性情)이다.

1) 주자에 의하면 측은, 수오, 사양, 시비(惻隱, 羞惡, 辭讓, 是非)는 정

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의 시선을 회피함,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언급하기를 두려워함,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는 것, 불만·적개심 등의 표현을 주저하는 것, 지나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태도, 지배적인 인물에 대해 전혀 반박을 못하는 것,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애정을 표시하지 못함, 타인을 칭찬할 줄도 모르고 칭찬받을 줄도 모름, 친구의 비합리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행동 등. 지나친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서 자기의 의사·감정 및 욕구의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29].”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들을 통하여, 우리문화에 젖어 있는 서열과 정에 의한 눈치문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평가에 예민한 점, 말보다는 침묵 그리고 실천이 미덕인 전통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겠다. 본 연구자가 만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예의 차원에서나 올바른 것 또는 정답이 아니면 자기표현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가만히 있게 된다고 하였다. 서구의 교육에 의해 자기표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는 되지만 전래되어 온 예의범절, 참는 것,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점과 자기표현과 자기주장을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자기표현 연습이 필요하겠다.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특별 프로그램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며, 학부모들에게도 부모-자녀 자기표현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확대 방안이 연구되고 도입된다면 도움이 되겠다. 한국인의 정서를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상대의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공감을 통한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감정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하겠다. 감정은 가장 현실적이며, 감정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본다고 한다. 감정으로써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만의 로고스(Rogos)가 담겨 있다. 지성 작업을 통하여 내가 왜 지금 기쁜가, 화가 나는가 등의 감정에 대해 물어보아야 하겠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정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매 순간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자신의 정서

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자신의 감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해야 하겠다. 자신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은 모든 태도들을 통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현해야만 이런 감정들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표면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표출이 알려주는 것은 내면의 감정이다. 이때 자신은 비로소 표면감정을 통하여 내면감정과 만나게 된다.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것이다[30].” 이런 공감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 공감이 왜 중요한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나게 될 때, 자신과 같은 타인들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기에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공감, 수용하며 소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IV. 융 심리학에서의 인간심성론과 퇴계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1. 융 심리학에서의 인간심성론

정서에 근거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서구 이론에서는 융 심리학의 인간심성론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융은 있는 그대로 자기실현과 개성화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였으며, 일생을 통해 이루어 나간다고 하였다. “융에 의하면 개성화 과정은 사람들이 인격에 있는 여러 가지 대극적(對極的)인 요소들, 즉 의식과 무의식, 인격의 긍정적이며 밝은 부분과 부정적이며 어두운 부분, 그들의 내면

에 있는 여성적인 요소와 남성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콤플렉스 등을 통합하여 전일적인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31].” 라고 하였다. “정신의 전체성, 즉 ‘자기’(Selbst)의 상징. ‘자기’ (Self 전체성)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전체정신이며, 자기원형이란 전체정신으로 마음을 통일할 수 있는 원초적이며 선형적인 인간 조건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전체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전체정신의 중심이다[32].” 라고 보았다. 융은 성격의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있고,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로 두 이론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융은 자아(ego)를 내가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정신적인 내용들의 군집이라고 했다. 무의식과 구별되는 의식의 중심을 자아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내면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이고, 즉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아가 요청하는 의식주의 요청과는 다른 어떤 영혼의 요청이 있다고 하였다. 융 심리학 인간심성론에서의 최고의 목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였다. 융은 [그림 1]에서 마음의 구조, 의식의 기능에서 보듯이 “정신의 기능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기능이다. 사고와 감정기능을 합리적 기능, 감각과 직관의 두 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이라 구분하였고 이 각 기능을 구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대립되고 있다[33].” 고 보았다. “사고와 감정을 합리적 기능에 분류하는 것은 두 기능이 모두 정(正), 부정(不正), 쾌(快), 불쾌(不快)의 판단을 내리는 기능인데 판단 과정이란 이치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각과 직관은 이와 같은 이성적 고려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인식이므로 비합리적 기능에 속한다[34].”고 하였다. 이런 내용을 [그림 1]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겠다. 외부로 표현되는 정신은 감각을 통해 감지한 사실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체계이고, 내부의 정신은 의식의 한 부분과 무의식의 연결체계이다. 이는 무의식 안에 있는 깊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의식화하도록 돕는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의식화하는 일이 온전한 자기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개성화의 과정에서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이 중요한 이유이다. 융의 심리학에서의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의 부분을 고찰해보면, 그는 한 인간이 각자의 개성을 실현하는 것을 하나의 전체 인생의 과제로 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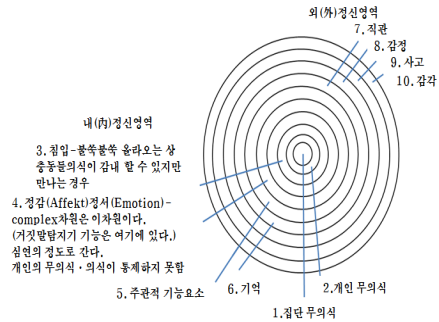


그림 1. 융의 마음의 구조, 의식의 기능

다. 융은 [그림 1]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마음(心)이라고 하였으며, 내적 정신 영역인 무의식의 깊은 감정(Emotion)을 알아차리고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들 즉, 자아(Ego)를 털어버리고 본성인 큰 자기(Self)로 나아가는 과정은 심통성정 이론과 상통한다. [그림 1]에서 8번째의 감정(feeling)은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감정으로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좋아하고 싫어함을 말한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꿈을 통하여 꿈 꿈을 분석하여 무의식의 감정 부분을 의식화 즉, 자기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돕는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도록 꿈분석 등을 통하여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에서의 자기표현은 융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단지 융의 심리학에서의 자기표현에 대하여, 널리 소통하려는 의미보다는 자기표현에만 한정한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마치 깨달은 성인이 경지에 이르러 크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에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기표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막힘없이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융

의 심리학 인간심성론에서 본성인 큰 자기(Self)로서 자신을 인지하는 감정이해와 이를 통한 자기표현은 중요하다 하겠다.

2. 퇴계의 심성론(心性論)

“퇴계의 심성론 연구는 대부분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논쟁의 제목인 사단과 칠정은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정감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 논쟁은 단순히 사단과 칠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근원을 다루게 된다[35].” “퇴계의 철학적 탐구는 도덕실천이라는 기본토대 위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36].” 퇴계는, 무릇 심학(心學)이 다양하게 전개되기는 하지만, 요약하여 말하자면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두 가지 일 [갈인욕, 존천리(遏人慾, 存天理)]에 불과하다[37]².”고 하였다. 퇴계는 “천리를 보존하려면,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의 구분이라든지 중절(中節)과 부중절(不中節)의 분별은 특히 심(心)의 주재(主宰)에 있다[38]³.”고 하였다. “예컨대 사단의 정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의 발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리워진 뒤에 유실되어 선하지 않게 됩니다. 일곱 가지 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일 기가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하여 이를 멀하게 되면 방탕해져 악이 됩니다. 이 인욕문 가운데 중절(中節)이란 마음이 작용하여 정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에 당연한 하늘의 도리에 맞는 심리상태 [중(中)]를 이루고, 심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천리에 맞는 심리상태 [화(和)]를 이룬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39]⁴.” “또한 퇴계는 경의 심학을 성인이나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한 학습 [왕도(王道)]에 적용한 이른바 성인의 학문 [성학

(聖學)]에서 “경이 성학(聖學)의 시작 [시(始)]과 끝 [종(終)]을 이루는 요체”라고도 주장한다. 혹은 달리 표현하여 “경이 한 마음의 주재가 되어서 만사의 근본이 된다”고도 말한다[40].” 퇴계는 심·성·정(心·性·情)의 성(性)이 정(情)을 통하여 발현되는데 자신의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으로 발현되기 전이면 올바른 생각(思)과 배움(學)으로, 정이 발현되었으면 올바른 배움을 통하여 바른 상태를 가지라고 하였다. 퇴계는 올바른 생각(思)과 배움(學)으로 잘못된 감정을 바로 잡는다면 누구나 올바른 감정,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聖學十道(성학십도) 進聖學十圖(진성학십도차) [拜圖] (배도)”에서 “제가 들으니, 맹자는 말하기를 “마음이 맑은 일은 생각이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생각의 덕은 사려 밝음이니, 사려가 밝게 되면 진리에 통달한 성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41].⁵” “또 들으니 공자는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익혀 참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대개 성인의 학문은 마음에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져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각하여 그 미묘한 이치에 통해야 합니다. 일을 익히지 아니하면 위태롭고 불안하므로 반드시 배워서 그 알찬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과 배움은 서로 발명(發明)하고 서로 도와줍니다[42].⁶” 라는 글을 통하여 공자와 맹자의 선진 유가사상이 성리학자인 퇴계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퇴계의 심성론은 대부분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중심으로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정감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근원을 다루고 있다. 그의 철학적 탐구는 도덕실천에 두고 있다. 퇴계는 그의 심성론에서 심·성·정(心·性·情)의 성(性)이 정(情)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情)으로 발현되기 전(前)이면, 올바른 생각(思)과 배움(學)으로, 정(情)으로 발현

2) 大低心學雖多端 總要而言之, 不過遏人慾, 存天理 兩事,

* 退溪全書 上해석은 성학십도의 이광호 해석에 따른다.

3) 然則天理人慾之判, 中節不中節之分, 特在平心之宰與不幸 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성학십도, 심통성정도설)

4) 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성학십도, 심통성정도설)

5) 竊嘗聞之, 孟子之言曰: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箕子之爲武王陳洪範也, 又曰: “思曰睿, 睿作聖.”

6) 抑又聞之, 孔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學也者, 習其事而眞踐履之謂也. 蓋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 無得, 故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 則危而不安, 故必學以踐其實. 思與學, 交相發而互 相益也.

되었으면 올바른 배움(學)을 통하여 바른 상태를 가지라고 하였다. 이것이 퇴계 심성론의 핵심이라 하겠다. 퇴계의 심성론에서의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을 살펴보면, 감정으로 발현되기 전후를 설정하였다. 먼저, 발현되기 전이면, 감정이해나 자기표현을 할 때, 올바른 생각과 바른 상태를 통하여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기표현을 하라고 하였다. 이미 감정이 표현되었으면, 왜 그런지 배움을 통하여 알아차리고 이를 통하여 소통하라고 하였다. 동·서양에서의 두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융의 심리학에서 “나는 개성화(individuation)라는 말을 정신적으로 개성을 찾은 사람,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통합체인 전인(homo-totus)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전인이란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현재의 인격보다 더 크며, 미래에 드러날 인간인 것이다. 융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전체성과 전체성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는 상징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43].” 또한 “인간을 전인적(全人的)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간의 치유를 전인성의 회복으로 보고, 인간의 본성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개성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 즉 전인성을 회복해야 한다[44].”고 하였다. 퇴계 심성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퇴계의 심성론에서 심·성·정(心·性·情)의 성(性)이 정(情)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한 점에서, 이 경우의 성(性)은 본성 또는 융의 전인성, 큰 자기(Self)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융은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을 통하여 그 전인성의 단계로 나아가간다고 보았고, 퇴계의 심성론에서는 수양을 통한 경(敬)의 경지를 강조한 점에서 점진적인 노력 부분에서는 유사하다고 본다. 다른 점은 본성을 만나는 과정상의 방법론에 있어서, 융은 꾸준히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과 대극의 합일을 통해 전인성을 만난다고 하였고, 퇴계는 심성을 다스리는 수양을 통하여 경(敬)의 경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겠다. 경(敬)에 대하여 다시 하면 살펴보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퇴계의 경(敬)은 일심(一心)의 주재(主宰)이면서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것으로 유학자가 최종적으로 회구하는 성학(聖學)의 시종(始終)을 이루는 요체이다. 곧 경(敬)은 주로 내면적 심성을 다스려 일종의 심적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

하면서 정신적 작용의 최정상(最頂上)을 달리는 것을 의미하겠다. 경(敬)을 수용하면서 경(敬)이 습득되면 인간의 삶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확신했다[45].”

V. 결론

본 논문은 의사소통에서 불통의 문제를 소통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과 자기표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동·서양의 학문에서의 이론적 접근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 대한 연구이기에, 먼저 한국인의 정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한국 문화의 특징과 의사소통의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하였다. 의사소통의 중심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에 깨어 있고,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후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런 관점을 통하여 주로 서구에서 들어온 융의 심리학에서의 인간심성론과 우리의 경우 퇴계의 심성론에 의한 감정의 중요성과 자기표현의 접근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통상 말하는 정(정쁨)과 심리학에서의 이성과 구분되는 감정의 정을 구분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내면 깊이에서 올라오는 감정인 큰 자기(Self)나 본성(性)을 알아차리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인 간접화법을 구사하여 직접적, 구체적이 아닌 이심전심으로 알아주기 바라거나 표현에 있어서 뭉뚱거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의사소통은 관계를 통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은 마음이 통해야 비로소 행동으로 움직이는 감정적 주체라는 것과 그 중심에 있는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통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일에 대한 자기 입장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선입견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어

면 일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함이 필요하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물질이 우선되고 인간의 소중함이 경시되는 현상을 겪게 되기에, 오히려 인간중심의 가치를 찾게 된다 하겠다.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로 인간이해와 감정에 대한 이해도 자연의 원리에 입각해서 적용해볼 수 있겠다. 자연이 이치대로 돌아간다면 인간도 자연과 같이 있는 그대로 만나고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각각 고유하게 태어났기에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방법도 다를 뿐이다. 그 다름을 퇴계의 심성론에 의하여 고찰하여, 평생 동안의 배움(學)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삶이란 것이며, 소통을 통하여 서로에 대해 배워가고 자기표현을 통해서 나눈다면 다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는 점을 규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학문적 이론에서의 감정의 중요성과 자기표현에 대하여 고찰하고 규명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동·서양의 이론적 접근방법이나 문제해결 방법은 다르지만,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해, 인간을 이성적 주체가 아닌 감정적 주체로서 본다는 점,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서양에서의 인간이해와 감정의 중요성을 다루는 이론적 학문에서의 접근을 통해 볼 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감정의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는 데도,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감정보다 이성으로 따지게 되고 사람을 다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특히나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을 중시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선택을 우선하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이익 등을 앞세운다. 어느 시대든 인간을 중시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중요시 하는 것은 다시 되찾아야 할 덕목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있는 그대로’ 이미 귀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겠다. 의사소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자신의 경우나 주변의 가까운 관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겠다. 나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면서 의사소통이 막히게 되고 불통이 되었을 때,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올바른 감정이해에 의한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사건이나 상대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갈등했던 상대에 대한 오해가 이해에 의해 올바른 견해로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서로의 입장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고(學) 알게 된다. 더불어 상대를 믿을 수 없도록 이끌었던 부정의 감정을 털어내면서 공감하고 수용할 때, 마음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사랑과 알아주는 마음인 인정의 마음을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것 하나로도 관계가 새롭게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면 이전의 상황과 달라진다 하겠다. 이럴 때, 삶 자체의 질은 이 전과 달리 한 차원 높아질 것이고, 그 차이는 확연하다 하겠다. 이렇듯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은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중요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로써 인간의 행위 주체는 이성이 아닌, 마음이 통해야 행동으로 움직이는 감정적 주체임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융의 심리학 중 인간심성론에서는 큰 자기(Self)에서 나오는 감정이며, 퇴계의 심성론에서는 본성 즉, 성(性)에서 나오는 올바른 정(情)에 의한 감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런 과정을 통한 의사소통이라면 서로의 감정이해와 자기표현이 잘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는 먼저, 동·서양의 의사소통과 감정이해의 차이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정(情)의 변천사를 연구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했는지 보는 것이다. 끝으로 동·서양의 여러 이론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정(情)과 같은 정들의 현상은 있는지 또는 정과 유사한 점들에 대해서도 연구해보는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장이, “한국인의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p.106, 2006.
- [2] Hall, Edward.T,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N.Y.: Doubleday, pp.131-164 참조, 1966.
- [3] 국제한국학회 공저,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p.178, 1998.
- [4] 이광성, “의사소통유형별 문제발생정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열린교육 연구, Vol.21, p.85, 2013.
- [5] 국제한국학회 공저,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p.238, 1998.
- [6] 이승화, *한국형 감수성 훈련이 타인관점수용, 대인관계태도 및 상담효과요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7, 2006.
- [7] 신천식, *한국인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2, 2002.
- [8] 이형철,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02, 2008.
- [9] 최주호, *한국인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5, 2009.
- [10] 김기범, “정(情) 마음의 일반인 심리학 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4, 2001.
- [11] 조근호,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서울대 심리과학 연구소 심리과학, 제6권, 1997.
- [12] 김근면, 차선경,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 p.331. 2013.
- [13] 봉은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0, p.401, 2013.
- [14] Harold 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Lyman Bryson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New York, Institute for Religious and social Studies, pp.37-38, 1948.
- [15] 유동수, *감수성 훈련*, 학지사, p.214, 2000.
- [16] 위의 책, p.216.
- [17] 최인재, 최상진,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 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Vol.14, p.56, 2002.
- [18]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근호, 이수원, *동양심리학*, 지식산업사, p.390, 1999.
- [19] 위의 책, p.381.
- [20] 허용, *느낌 말 모음집*,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11, 2000.
- [21] <http://www.doopedia.co.kr/>
- [22] 조성호, “공감의 이해”,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 제22집, p.10, 2004.
- [23] 이희승, 양주동, 이승녕, *국어대사전*, p.1803, 1990.
- [24]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 심리학 :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7집, pp.219-234, 1995.
- [25] 임태섭 편,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한나래, pp.17-19, 1995.
- [26] 최인재, 최상진,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 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Vol.14, p.56, 2005.
- [27] 국제한국학회 공저,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p.164, 1998.
- [28] 신창호, “*儒學 性論의 地坪과 人性教育의 指向*”, 한국유교학회 국제학술회의, p.170, 2013.
- [29] 이장호, *상담심리학*, 박영사, p.136, 1997.
- [30] 동서심리상담연구소저, *이제는 부모자격증시대*, 동서심리상담연구소출판부, p.121, 2004.
- [31]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학지사, p.313, 2001.
- [32] 이부영, *노자와 용*, 한길사, p.15, 2012.
- [33]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p.143, 1978.
- [34] 위의 책, p.144.
- [35] 엄진성, *퇴계 심성론의 도덕정감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 2012.

- [36] 김기주, "퇴계철학의 특성에 대한 一考察", 동양 철학연구, 제20권, p.149, 1999.
- [37] 退溪全書 上, 答李平叔, p.849.
- [38] 退溪全書 上, 答李宏仲問目, p.816
- [39] 이황, 성학십도, 이광호 역, 홍익출판사, p.9, 2001.
- [40]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근호, 이수원, 동양심리학, 청림문화사, p.170, 1999.
- [41] 이황, 성학십도, 이광호 역, 홍익출판사, p.32, 2001.
- [42] 위의 책, p.34, 2001.
- [43]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동명출판사, p.75, 1998.
- [44] 위의 책, p.335.
- [45] 박홍식, "퇴계철학에 나타난 자아발견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제14권, pp.167-168, 1994.

저 자 소 개

김 장 이(Jang-Ee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문학석사)
- 2014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박사과정)
- 2005년 3월 ~ 현재 : 미래연심

리상담센터 소장

<관심분야> : 상담, 영성, 철학